

- I. 들어가는 글
- II. 양안 교육 교류의 전개과정
- III. 마잉주정부의 대륙유학생 유치정책 실시 배경 및 논쟁
- IV. 대륙유학생 유치정책 실시 현황 및 영향
- V. 평가 및 시사점

I. 들어가는 글

1) 문제제기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과 대만은 한반도의 남과 북처럼 분단국가이다. 양안(중국과 대만을 지칭)은 66년의 분단 상태를 이어오고 있으며, 남북한은 분단된 지 70년을 넘어서고 있다. 장기간의 분단은 이데올로기 대립과 군사적 대치상태로 점철해오면서 상호 이질적인 체제를 형성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양안관계와 남북관계는 외견상으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쪽은 대립과 대치 구도에서도 교류협력을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관계개선과 평화적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는데 반하여, 다른 한쪽은 비타협적 대결구도가 지속되면서 교류협력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서 상호 불신과 위협에 따른 불안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현상적으로 양안은 분단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해오고 있다. 1987년 대만 장징궈(蔣經國) 총통의 대만주민의 대륙 친족 방문 허용(探親) 조치로 시작된 양안사이의 교류협력은, 대만주체성을 강조하고, 대만독립 의지를 표출하던 리덩후이(李登輝),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집권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중반에도 질곡은 있었지만 중단되지 않았다. 2008년 정권교체를 한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정부는 적극적인 양안 관계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경제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그와 함께 문화교육 분야에서도 한층 더 발전된 수준의 교류를 실시하였다

마잉주정부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의 대학학력을 인정하면서, 중국대학(원)에 유학한 대만학생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대륙의 중국학생들이 대만 대학(원) 학위과정 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륙유학생 유치(中國大陸學生赴台就讀)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중국학생들이 대만의 대학과 대학원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대만학생과 마찬가지로의 동일한 학위를 수여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양안 교육 교류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¹⁾

1) 중국에 유학하는 대만유학생은 중국 대학(원)이 정식 모집을 시작한 1987년 이후 2000년까지 3,000명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8년 이후 급증하여, 매년 2,000명정도 유학을 하고, 2015년 현재 약 7,000명 정도가 중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2014년 6월까지 3만 여명의 대만학생들이 중국 대학 학위를 취득해 있다. 鄒夢瑩, “台生在大陸求學現狀評析”, 中央網路報, 2015-10-15, <http://www.cdnews.com.tw> (2015년 12월3일 검색일) 한편 대만의 대학(원)에 유학해 있는 중국유학생들은 2015년 약 6,000여명 정도이며, 올해 처음으로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900여명 배출되었다.(자세한 통계수치는 본문 4장 참조)

대만의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의 실시는 양안이 처해있는 국제 환경과 국내의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안 정부가 적극 대응한 결과이다. 국민당 출신의 마잉주정부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교육교류를 통해 국제화 환경에서의 대만 대학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척하고, 인적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안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이 깔려 있으며, 중국 역시 우선적으로 중국 학생들의 학습욕구에 부응하며, 장기적으로는 대만주체성을 강조하며 중국으로부터 이탈하려는 대만을 혈연과 문화적 공유의식을 통해 붙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은 2015년에 928명에 이르는 대륙학생들이 대만의 대학에서 대만 동창생들과 함께 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었다. 양안 언론은 교육교류가 양안의 대학 교육 욕구와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양안 정치적 화해와 평화 분위기 조성의 디딤돌로 간주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15년 11월 7일 양안 정상인 싱가포르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대만의 마잉주 총통은 양안 교육교류가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지속적인 확대발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가능한 분야에서 적절한 교류를 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양안 교육교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대만정부의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대륙학생들이 2년 혹은 수년 동안 대만에서 장기 거주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때문에 유학기간 대만의 대학, 학생,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인해 대만 내부에서는 정책 시행에 앞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맞서면서 극심한 논쟁이 벌어졌고, 대륙과 대만 사회에 미치는 정치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회 졸업생이 배출된 현재도 이러한 양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논쟁은 대만에서 기존에 형성되어있는 정체성 대립과 통독입장의 갈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한편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대륙유학생 유치가 입학 학생수의 감소로 대만 대학의 재정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면에 대륙유학생때문에 대만 학생들에게 가야할 교육자원의 혜택 제공이나 취업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며, 다른 한편으로 안보적 측면에서 대륙유학생이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에 의해 대만의 안보에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과 오히려 대륙학생들로 하여금 대만의 민주적 정치체제와 자유로운 사회분위기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다.

이 글은 양안교육교류가 양안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고, 또한 남북관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찾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문제제기를 통해 답을 찾고자 한다.

1. 양안교육교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으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2.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의 목적은 무엇이고, 대만 내부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이유는 무엇인가?
3.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4.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에 대한 학생, 민중의 반응은 무엇이고,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문제제기에 따라 이 글은 다음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문제제기와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것이며, 제2장은 양안교육교류가 양안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어떻게 변

화해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내용이다. 제3장은 이 글의 본문에 해당되는 마잉주정부의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에 대한 것으로, 마 정부가 교육교류를 확대 실시한 배경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찬반 논쟁 입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만내부 정치세력의 시각을 고찰할 것이다. 제4장은 유치정책 실시 현황과 현행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홉가지 제한조치 내용을 통해 대만의 양안교육교류의 특수성을 분석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만의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에 대한 학생과 일반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고, 양안교육교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양안교류협력의 확대는 양안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질적인 두 집단이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용력을 발휘하여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인종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고든 올포트(Gordon Allport)는 접촉가설 혹은 집단접촉이론(Contact Hypothesis or Intergroup Contact Theory)을 발표하여 인종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집단간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것을 통해서 집단사이의 편견과 오해(intergroup bias and prejudice)를 감소시키고, 상호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²⁾ 집단접촉이론은 서로 대립하는 두 집단이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전제한다. 올포트는 집단 접촉이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평등한 지위(equal status), 둘째, 공동의 목표 공유(common goals), 셋째, 협력 후의 지속적 관계 유지(acquaintance potential), 넷째, 양 집단의 권위, 법률, 관습상의 지지(support of authorities, law or customs) 등 네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

한편 소프트파워(Softpower) 개념을 제기했던 조셉 나이(Joseph Nye)교수는 평화이론(peace theory)을 활용하여 양안관계를 분석했다. 그는 1987년부터 2008년까지의 양안관계의 발전모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양안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대만해협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만의 민주제도와 주민의 자질이 양안의 현상유지와 전쟁발발을 예방하는데 기여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양안관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즉 중국사회가 아직 민주적 발전이 부족한 상태이고, 양안 사이에 국제적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양안관계의 긴장상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⁴⁾

이 글은 접촉가설과 평화이론에 따라 양안사이의 교류협력의 증대가 양안관계의 질적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긍정적인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양안 교육교류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에 대한 대만내부의 논쟁, 현황과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입증하고자 한다.

II. 양안 교육 교류의 전개과정

2) Allport, G., & Allport, G. W.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Perseus Books, 1954. 周祝瑛, 兩岸大學生交流之回顧 1992-2012, 2013, pp. 120-121. 재인용

3) Allport, G., & Allport, G. W. 1954, 周祝瑛, 兩岸大學生交流之回顧 1992-2012, 2013, pp. 120-121. 재인용

4) Nye, Joseph S.,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周祝瑛, 兩岸大學生交流之回顧 1992-2012, 2013, p. 124. 재인용

양안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만에 다가서려는 입장이고, 대만은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자세를 보여왔다. 이른바 교류 초기부터 취해온 ‘물자 교역 우선, 인적 교류 나중(先物後人)’입장이⁵⁾ 현재까지 대만의 양안교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교육교류에 있어서도 중국은 먼저 적극적으로 교류를 제안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대만대학학력을 인정하고, 홍콩, 마카오, 대만학생들의 대륙 학교 입학에 허용하였다. 대만은 1990년대 들어서 대륙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단기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형태에 국한하였다. 이러한 “과감한 중국과 신중한 대만”이라는 양안관계의 기조는 마잉주정부의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양안교육교류의 전개과정을 대만의 입장에서 비추어보면, 교류 단절 시기(1949~1987), 제한적인 교류 시기(1987~1999), 중단 없는 유지 시기(1999~2008), 교류 성장 시기(2008~현재) 등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⁶⁾ 1단계는 장제스 총통과 장징궈 총통의 중국에 대한 비타협적 입장이 지속되면서 일체의 교류가 중단된 시기이다. 2단계는 장징궈총통이 탐친을 허용한 이후, 리덩후이 총통에 의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양안교류가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3단계는 대만 독립입장이 강한 민진당의 천수이볜 총통이 양안교류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경제교역과 인적교류를 중단시키지도 않고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4단계는 중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국민당 마잉주정부에 의해 대륙유학생의 유치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등 양안교육교류에 있어서 양적, 질적인 발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1. 교류 단절 시기 (1949~1987년)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장제스와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이주한 1949년부터 덩샤오핑에 의해 개혁개방노선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1978년까지 양안은 적대적 대치가 거듭되면서 거의 모든 교류가 단절된 상태였다.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공격하여 통일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대만은 공산당과 상대하지 않는다는 ‘한적불양립(漢賊不兩立)’ 입장이 장징궈 총통으로 계승되면서 상호 무력대치와 관계단절이 계속되었다.

양안교류의 손을 내민 것은 먼저 대륙 중국이었다. 경제건설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정한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해외 화교자본의 유치와 대만의 경제성장 경험을 활용하고자 했고, 무력통일방식의 강경정책을 평화통일방식의 온건정책으로 전환했다. 1979년 제5차 ‘대만동포에게 보내는 글(告臺灣同胞書)’을 통해 평화통일방식으로 양안관계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정보, 물자, 이동수단의 제한을 해제하는 3통(통우, 통상, 통항)실현을 통한 양안 관계 개선과 교류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교육교류분야와 관련해서도 1978년 대만유학생의 대륙 석박사과정 입학에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등 양안 교육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만은 중국의 관계개선 제안을 대만의 정치적 안정을 침해하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거부했다. 1979년 4월 4일, 대만의 중국국민당 회의에서 장징궈 총통은 “접촉하지도 않고, 담판하지도 않으며, 협상하지도 않는다”는 3불(不)정책을 양안관계의 원칙으로 공표하면

5) 何秀珍, 兩岸文教交流策略分析, 國際暨兩岸交流處, p. 170.

6) 중국의 입장에서 양안교류의 특성에 따른 시기구분은 다르지 않다. 다만 표현되는 용어가 시범실시 시기(1988-2000), 굴곡의 시기(2000-2008), 가속발전기(2008-현재)로 되어 있다. 용어에서 교육교류를 바라보는 양안의 시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叶思思, 台灣地區招收大陸學生赴台就學政策研究, 湘潭大學, 公共管理 碩士, 2013.; 劉丹, 陸生政策合法化及其影響因素研究, 浙江師範大學, 高等教育學 碩士, 2012.

서, 양안교육교류는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의 교육교류 시도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80년 중국은 [화교청년귀국 및 홍콩마카오 내지 귀환 대륙대학 입학문제에 대한 통지]를 통하여, 해외 화교와 홍콩, 마카오, 대만 출신 학생들이 대륙의 대학에 입학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85년 7월에는 베이징대학 등 7개 대학을 통하여 대만학생들의 입학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대만과의 교육교류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만정부의 정식 입학허가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인 1987년 9월 처음으로 대만 유학생이 중국 대학에 정식 입학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⁷⁾

양안사이의 철저한 관계단절이라는 장징궈정부의 폐쇄적 정책은 대만 내부로부터 비판받기 시작했다. 경제발전을 위해 해외 화교 및 홍콩, 마카오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본격적인 국제협력체제가 구성되는 상황에서 양안이 접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가는데 정부의 비타협적인 정책은 현실을 외면한 비합리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⁸⁾

동시에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양안 인적교류 요구가 아래로부터 분출하였다. 주요하게 대륙에 가족을 남겨두고 장제스와 함께 대만으로 이주해온 퇴역군인들이었다.⁹⁾ 이들은 장제스와 함께 생사를 같이했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당을 지지하는 대륙출신의 외성인들이 다수였다. 이들 국민당군 노병들은 어느덧 40여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돌아가지도 만날 수도 없는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더해갔고, ‘노병자유귀향운동(老兵自由返鄉運動)’과 같은 대중시위를 통하여 장징궈총통과 국민당을 비판하면서 인도적 교류조치 거부하는 3불정책을 비판하였다.¹⁰⁾

결국 장징궈는 1987년 11월 2일 계엄해제와 대만주민의 대륙가족방문을 허용하는 [대만인의 대륙 탐친 규정]을 발표하였고, 당시 40여 만 명의 생존 노병들이 대륙에 있는 자신들의 고향방문과 친족상봉을 할 수 있게 되었다.¹¹⁾ 양안 사이에 인적교류의 빗장이 열리면서 문화교육교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 제한적인 교류 시기 (1988-2000년)

대만 장징궈 총통은 양안 인적교류를 허용하는 탐친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38년동안 대만의 민주주의를 통제해왔던 계엄조치 역시 해제했다. 대만은 국민당의 일당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실시에 의지한 비민주적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언론과 정당 활동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계엄해제에 뒤이은 언론자유화에 의해 대만 내부 소식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 정

7) 李曉萍, ‘開放陸生來台就學政策與機制’, 2008-2012, 淡江大學 碩士, 2011. p. 35.

8) 1982년 국민당 입법위원이 중국과의 통일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3불정책을 비판하고, 1986년 5월 3일에는 대만 중화항공의 화물기 기장이 비행기를 납치하여 중국 광저우에 불시착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자, 양안 정부 관계자가 사건 처리를 위해 접촉, 협상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9) 百万台湾老兵归乡内幕—台湾开放老兵探亲20年(100만 대만노병 귀향내막- 노병 가족상봉 허용 20년) 고향생각 -, http://www.guancha.cn/FengHuangZhouKan/2013_02_21_155304.shtml

10) 이들은 의사표현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는데, 소위 ‘외성인귀향상봉촉진회(外省人返鄉探親促進會)’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집이 그리다(想家)’, ‘어머니 보고싶어요(媽媽我好想你)’ 등의 구호를 적은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행동은 대만 민중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一條漫長回家的路—老兵返鄉探親運動, http://ndweb.iis.sinica.edu.tw/TWM/Public/pdf/old_soldier.pdf

11) 장징궈 총통은 탐친 결정을 발표하면서 반공(反共) 정책과 국토 회복의 목표는 성취하지 못했으나, 가족을 중시하는 전통윤리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가족상봉목적의 대륙방문을 허용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역 군인과 현직 공직자를 제외하고, 대륙에 직접 혈친이거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3촌 이내로 제한하였다. 방문횟수는 1년에 1회로 제한하였으나 방문기간을 1회 3개월 동안 대륙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교적 과감한 형태의 친족방문 조치였다.

보도 상세하게 보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륙이 1980년대 초반 발표한 대만의 대학 학력 인정 뉴스와 대만유학생의 대륙 대학으로의 입학에 장려하는 소식이 대만의 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대륙과의 교육교류를 희망하는 요구들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1988년 대만 정부가 [대륙의 우수한 인재로 한정하여 대륙출신의 해외 학자와 유학생의 대만 참관방문 심사원칙]을 발표하여 양안교류의 시동을 걸었다. 이 조치는 제한요소가 있는데 대륙의 국방안보분야 인사를 제외한 일반 분야 전문가들로 국한하여, 대만을 방문하고 문화교육과 관련한 교류활동만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¹²⁾ 양안교류 개방요구와 국가안보를 고려해야 하는 양 측면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교류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중국에서 1989년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고, 대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교육분야에서의 실제 교류는 성사되지 않았다.

양안교육교류는 1990년대 들어 정식으로 총통이 된 리덩후이 정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1990년 5월 리 총통은 취임사에서 “중공당국이 민주정치와 자유경제를 추진하고, 대만해협에서 무력사용을 중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대만을 외교적으로 독립화하려는 시도를 중지한다면, 대만은 대등한 지위로 상호 소통통로를 구축하여, 전면적으로 학술, 문화,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¹³⁾

대만 내부에서 대륙학생의 대만 유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유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대륙 대학의 학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같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리덩후이 총통도 양안교육교류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았다. 리덩후이 총통은 교육교류를 양안 교류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¹⁴⁾ 한편 이 시기의 중국도 1991년에 대만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을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 7개 대학에서 34개 대학으로 늘리고, 대만학생들에게는 입학시험과목에서 정치과목을 제외하고, 정식교과과정에서 정치과목의 필수학점 이수도 면제하겠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육교류에 있어서 정치적 장애물을 최소화하려는 자세를 보였다.¹⁵⁾ 이는 대만유학생을 중국공산당의 사상선전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라는 대만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분위기 전환을 꾀하던 중국은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개혁개방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면서, 양안교육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만도 만년국회를 해산하는 등 일련의 민주화 조치로 다수민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한 리덩후이가 대륙과의 교류 요구에 부응하면서 양안관계 개선 및 교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양안 정부는 먼저 1992년 7월 양안 인민의 교류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정으로 [양안 인민관계조례]를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양안인민관계조례]는 통일되기 이전의 양안을 대륙지구와 대만지구로 정하고 두 지역의 인민의 경제, 무역, 문화 등 분야의 교류를 법적으로 정한 것으로, 현재의 양안 교류 기본법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1월에는 대륙의 양안관계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라는 반관영 기구가 정식으로 접촉하면서, 정치경제적 분야의 교류를 시작했다.

1990년대 양안의 정치지도자들은 통일문제와 정체성 논란에 대해서 각자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도 경제와 문화교육 분야에서의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였다.¹⁶⁾

12) 吳榮鎮, 兩岸教育交流政策文化價值觀之評析, p. 181, ct100.chihlee.edu.tw/ezfiles/11/1011/img/.../a011.doc(2015년 11월 8일 검색일)

13) 吳榮鎮, 위의 글.

14) 吳榮鎮, 위의 글.

15) 李曉萍, 開放陸生來台就學政策與機制 2008-2012, 淡江大學 碩士, 2011. p. 36

중국은 211공정과 985공정을 통해 중국의 대학 학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한편 1996년 대만학생들에게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¹⁷⁾ 대만도 대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류를 통해 얻는 경제적, 교육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류 분야, 학생 수를 제한하고, 대만체제 기한을 단기간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양안 교육 교류는 단기 연수생의 교류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대륙학생은 대만의 대학에서 보통 2-4개월 기한의 단기연수를 경험하고 대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연수생'신분으로 대만에서 거주가 허용되었다. 1999년 리덩후이총통이 양안이 특수한 국가관계라는 '양국론(兩國論)'을 제기하면서 양안관계는 경색국면으로 넘어갔지만, 단기연수생 교류는 지속되었다.

3. 중단 없는 유지 시기 (2000-2008)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의 천수이벤 정부시기였던 2000년대 초중반 양안관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대륙과 대립적 구도가 형성되면서 긴장상태로 점철되었다. 천수이벤 정부는 전임 리덩후이총통이 제기한 양국론과 유사한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제기하면서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였고, 양안관계는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위기상황이 도래하면서 양안교류도 정체되기 시작했다.

천수이벤 총통은 자신의 임기동안에는 절대로 대륙의 학력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며, 대륙 학생도 대만에 들어와 공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예산항목에서 대륙학력인정 관련 예산을 전부 삭감하기도 하고, 2004년에는 두정성(杜正勝) 교육부장관이 대만의 대학과 대륙의 대학사이의 교류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교류의사를 갖고 있는 대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¹⁸⁾

그러나 교육분야에서의 교류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류유지가 이루어졌다. 한 대만 학자가 헨더슨(Henderson)의 '분열국가이론'을 인용하면서 두 집단이 화해(和解) 단계로 진입하면, 관광, 경제, 교육 등 비정치군사적 분야의 교류는 더욱 밀접해진다.¹⁹⁾ 라고 주장한 것처럼, 양안이 직접적인 무력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극심한 대립이 나타날 수 있으나, 비정치 분야의 교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충돌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胡錦濤)는 2004년 대만 총통선거가 있기 전인 2003년에 대만 경제인들과의 만남에서 대만 독립 시도는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강화

16) 1995년 1월 30일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江澤民)은 양안관계와 관련하여 “조국통일 대업 완성을 위하여 계속 분투하자”는 연설에서 “하나의 중국원칙 견지, 대만의 일중일대 반대, 평화통일, 3통 실현, 대만동포에 문호개방, 중화문화 공동계승 및 발양 등의 8가지(江八點)에 걸쳐 중국의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만의 리덩후이 총통은 4월 8일 양안 분리통치의 현실 위에서 통일 추구, 중화문화기초하에 교류강화, 경제무역교류 증진, 국제기구 평등 참여, 평화통일, 홍콩마카오의 번영, 민주 촉진 등 6가지(李六條)를 양안관계의 중점 과제로 하자고 제안했다.

http://news.xinhuanet.com/taiwan/2005-01/26/content_2510849.htm(2015년 12월 2일 검색일)

17) 211공정은 중국 국무원이 1993년 발표한 ‘중국교육개혁발전강요’를 통해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100여개의 대학을 중점고등교육시설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첫 번째 국가급 교육프로젝트이다. 985공정은 1998년 5월 베이징대학 개교 기념식상에서 국가주석 장쩌민이 국제적으로 최상급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대학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두 번째 국가급 교육프로젝트로서 현재 39개 대학이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李曉萍, 開放陸生來台就學政策與機制 2008-2012, 淡江大學 碩士, 2011. pp. 16-18.

18) 華夏經緯網, 陳水扁聲稱任內不開放大陸勞工、不承認大陸學歷, 2003년 12월 17일.
<http://big5.huaxia.com/20031229/00161405.html> (2015년 11월 15일 검색일)

19) 周祝瑛, 兩岸大學生交流之回顧 1992-2012, 2013, p. 126.

하겠다는 양안 관계 정경분리 방침을 밝혔다. 후진타오는 “정치적 의견차이가 양안경제협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중국은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의 양안 교류와 협력이 강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면서 교육교류를 통한 양안관계의 단절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²⁰⁾

총통선거에서 재선한 천수이볜의 민진당 정부가 대만독립 노선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2005년 3월 4일 양안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 부정, 평화통일 노력 거부, 대만인민에 대한 신뢰 포기, 통독활동 용인”이라는 네 가지 부분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호사점(胡四点)’을 발표하였다.²¹⁾ 그리고 같은 해 3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대만독립 시도를 막기 위해 [반분열국가법]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 양안사이의 긴장관계는 최고도로 올라갔다. 하지만 양안의 정경분리 움직임에 따라 경제교류와 문화교육 등의 인적교류는 지속할 수 있었다.

천수이볜 정부가 집권하던 2001-2006년 사이의 양안교류 통계를 보면 대만을 방문한 대륙인사들의 문화교육교류건수가 매년 1만 여건 이상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²²⁾ 천수이볜 정부도 경제와 교육 등 비정치적 교류의 완전 단절을 통한 대만의 주체성 강화와 대만독립의 추구는 양안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만 민중은 선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다.

표1) 문화교육교류를 위해 대만방문을 신청한 대륙인사들의 허가건수

| 項目 | 2000年以前 | 2001年 | 2002年 | 2003年 | 2004年 | 2005年 | 2006年1-6月 | 合計 |
|-------------|---------|-------|-------|-------|-------|-------|-----------|--------|
| 文教活動 | 49108 | 10446 | 14270 | 8723 | 10938 | 12315 | 7991 | 113796 |
| 大眾傳播 | 5771 | 2516 | 3392 | 2345 | 2396 | 1688 | 828 | 18936 |
| 學術科技活動 | -- | 580 | 1528 | 779 | 685 | 900 | 560 | 5032 |
| 學術科技研究 | 1498 | 246 | 249 | 176 | 1084 | 873 | 1843 | 5969 |
| 產業交流 | 99 | 16 | 219 | 350 | 408 | 162 | 138 | 1392 |
| 傳習民族藝術及民俗技藝 | 191 | 59 | 37 | 90 | 45 | 58 | 70 | 500 |
| 宗教活動 | 1998 | 427 | 681 | 379 | 582 | 512 | 360 | 4939 |
| 衛生活動 | 2692 | 1418 | 2103 | 1129 | 1509 | 1641 | 1009 | 11501 |
| 法律活動 | 246 | 141 | 81 | 149 | 79 | 191 | 113 | 1000 |
| 地政活動 | 999 | 343 | 708 | 489 | 216 | 124 | 94 | 2973 |
| 營建活動 | -- | 338 | 814 | 659 | 748 | 506 | 314 | 3379 |
| 公共工程活動 | -- | 17 | 46 | 30 | 18 | 13 | 61 | 185 |
| 消防活動 | -- | 30 | 139 | 128 | 157 | 162 | 141 | 757 |
| 體育活動 | 2780 | 857 | 971 | 593 | 865 | 1085 | 559 | 7710 |
| 社福活動 | -- | -- | -- | 72 | 242 | 242 | 131 | 536 |
| 總計 | 65382 | 17434 | 25238 | 16041 | 19821 | 20472 | 14217 | 178605 |

자료 출처: 何秀珍, 兩岸文教交流策略分析 - 國際暨兩岸交流處, p. 171 재인용

4. 교류 성장 시기(2008~현재)

2008년 본래 양안교육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마잉주가 총통선거에 승리하면서 다시금 집권하게 된 국민당정부는 대만 경제발전과 양안 평화정착을 목표로 중국과 교류확대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행했다. 이에 따라 양안 경제무역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문화교육부에서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양안 교류는 양적 확대에 그치

20) “후진타오 ‘양안 관계 정경분리’ 천명”, 동아일보, 2003년 12월 26일.

<http://news.donga.com/3/all/20031226/8014878/1>(2015년 10월 15일 검색일)

21) 胡锦涛就新形势下发展两岸关系提出四点意见, 2005년 3월 4일.

<http://news.sina.com.cn/c/2005-03-04/17225269441s.shtml>(2015년 10월 15일 검색일)

22) 何秀珍, 兩岸文教交流策略分析 - 國際暨兩岸交流處, p. 171

지 않고, 질적 발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잉주 정부의 양안경제무역기본협정(ECFA) 체결과 정치, 민간부문에서의 인적교류 확대 등을 통한 양안교류 확대 정책은 한편으로는 대만 야당과 민중들의 우려와 반대에 부딪치면서 정부와 집권 국민당의 지지도 하락과 지방선거 참패 등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만 경제의 회생과 양안 관계의 제도화를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교류는 대만 경제의 회생 동력으로 작용하고, 인적교류는 양안 민중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양안교류 확대는 대만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대만경제가 중국경제로 빠르게 편입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편으로 인적교류 확대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통합 분위기를 고취시키지만 동시에 대만주체意識을 약화시키고 정치사회적으로 대만을 중국으로 예측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다. 마잉주 정부와 국민당은 전자를 강조하고, 야당인 민진당과 대만주체성을 강조하는 시민들은 후자의 입장을 주장한다.

마잉주 총통은 대만이 대륙의 대학학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륙유학생의 대만유학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찍이 나타냈다. 마잉주는 타이베이시장 시기였던 2004년에 “대륙학력을 인정하는 것은 대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미래에 대만의 대륙위원회 주임이 (중국의) 베이징대학이나 중궈런민대학의 졸업생이고, 대륙의 국무원 대만 판공실 주임이 (대만의) 타이완대학이나 칭화대학을 졸업하였다면 좋지 않은가?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공연한 오해나 논쟁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한바 있다.²³⁾ 교육교류가 향후 양안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총통이 되기 이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2007년 6월 마잉주는 대만의 제12대 총통선거에 나서면서 “해외유학생의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국제교류를 촉진시키겠다.”는 교육공약을 발표하였다. 총통에 당선된 이후에는 먼저 1만 여명의 대만학생들을 외국 대학으로 보내어 유학 및 연수를 시키겠다는 청년인재양성프로그램(萬馬奔騰計畫)²⁴⁾을 추진하고, 외국 유학생을 2배 이상 증가하여, 대만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세계화의 실현을 가속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마잉주는 2008년 5월 20일 취임연설에서 “양안이 상호 이득을 얻는(winwin) 출발점은 경제무역의 왕래와 문화교류의 전면적인 정상화이다.”라고 천명하면서 양안교육교류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얼마 후 양안의 반관영 대화기구인 중국의 양안해협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의 쌍방회담(江陳會談)이 열려 양안전세기 취항과 대륙주민의 대만관광 관련 협정을 결정했다. 10월 21일에 대만교육부는 정식으로 대륙유학생의 대만연수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대만의 대학이 대륙에서 모집 등 교육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12월 4일에는 민진당 등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을 반대하는 세력과의 협상을 거쳐 ‘대륙유학생 유치 관련 3개 법안(이하 육생3법)’의 수정안을 입법원에서 통과시켜 대륙유학생의 유치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국도 교육교류의 확대를 위해 전향적인 조치를 결정해 나갔다. 2009년 대만의 대학입학

23) 陳曉宜, “馬英九: 承認中國學歷才是愛台灣”

<http://old.ltn.com.tw/2004/new/aug/21/today-p1.htm>(2015년 10월 16일 검색일)

24) 萬馬奔騰計畫(Horses Galloping' Program Grant)은 1만여 명의 대만학생을 외국으로 유학 및 연수를 보내는 한편 4년 이내에 2만여 명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여, 대만의 지식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마잉주의 교육 공약이다. 僑委會, 萬馬奔騰計畫首批國際事務人才結訓, 中央社訊息平台, <http://www.cna.com.tw/postwrite/Detail/37395.aspx#.VmaJktLhBpg>(2015년 10월 16일 검색일)

능력측정시험에서 정표생(頂標生, 상위 12% 이내 성적우수자)은 대륙의 대학에 무시험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10년도에 83명의 대만학생이 무시험 전형방식으로 합격하였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대만 대학입학능력측정시험에서 50% 이내 성적취득학생들도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을 허용하고, 대만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대륙주민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의료보험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대만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하는 형태의 적극적 양안교육교류를 시행하고 있다.²⁵⁾

마잉주정부는 대륙유학생 유치에 위하여 먼저 중국 대학의 학력을 인정하는 조치를 추진하였다.²⁶⁾ 2009년 11월 7일 대만 교육부는 첫 번째로 대륙의 41개 대학에 대해서 학력을 인정했다. 즉 이 대학 졸업자인 경우는 대만의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12월에는 매년 입학 가능한 정원을 대만학생의 대학입학정원의 1% 수준인 2,000명으로 제한하여 받아들이겠다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학생 수의 제한을 통해 대만사회에 줄 수 있는 충격파를 가급적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비록 몇 가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만 대학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장기유학 학위생(學位生)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양안교육교류는 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는 과거에도 대륙유학생이 대만에서 연수를 받다가 몇 개 월 후에는 바로 돌아가야 하는 연수생(交換生) 방식의 교육교류 문제점을 일정정도 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Ⅲ. 마잉주정부의 대륙유학생 유치정책 실시 배경 및 논쟁

마잉주 정부의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은 대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양안관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만의 기본적인 시각이 바탕에 깔려있다. 마잉주는 대륙유학생들이 대만에 유학하러 올 경우에는 학생수의 감소로 야기될 대학 재정위기를 일정정도 해소할 것이며, 더 나아가 양안 인적교류의 제도화는 대만해협의 잠재적 불안요소를 감소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는 점이다.

1. 유치 정책의 목적

2008년 새로이 정권교체에 성공한 마잉주 정부는 일련의 준비작업을 거쳐서, 2009년 교육부가 [대륙학력인정과 대륙학생의 대만유학 개방에 대한 설명] 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국가사회의 이익’, ‘고등교육의 발전’, ‘청년학생의 학습 발전’이라는 세 가지 이익으로 분류하여 대륙유학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설명했다.²⁷⁾

이 글에서는 유치정책의 목적을 안보이익, 경제이익, 교육이익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²⁸⁾

25) 李曉萍, 開放陸生來台就學政策與機制 2008-2012, 淡江大學 碩士, 2011. pp. 40-43. 대륙의 양안관계에 있어서 대만에 대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혜대(惠臺) 즉 ‘대만에게 베푸다’는 의미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장쩌민 주석이 내놓은 대만정책으로써 1999년 리덩후이 총통이 양국론을 제기하던 시기에도 “글로벌 공격하고 힘으로는 겁을 준다(文攻武嚇)”로 맞서고, 후진타오 시기에는 “경제무역교류를 강화하여 대만주민의 민심을 얻는다”는 비폭력 평화 방식으로 양안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중국식 햇볕정책이다. 李曉萍, 앞의 글, p. 16.

26) <馬英九教育政策-對新世代的教育承諾>, 馬英九, 蕭萬長的全方位政策白皮書, <http://2008.ma19.net/policy4you/education>, (2015년 10월 16일 검색일)

27) 教育部, [開放大陸學歷採認與陸生來台就學說明], 2009년 6월 10일.

28) 吳秀玲, 陸生來台政策之評估政策白皮書, 公共政策與法律研究中心, 2013.2.28. pp. 23-28.

1.1 안보이익 측면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 볼 때 양안사이에 나타나는 경제적, 국제적, 군사적 능력의 차이는 대만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안보문제가 정책결정의 최우선순위인 만큼 대만도 양안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안보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만 사회로 대륙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국가안보를 고려해 볼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면대면 교류방식은 양자가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접 소통방식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직접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가 증진되고,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직접소통방식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은 대륙유학생들의 대만유학이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불안의식이 깔려있다. 그동안의 양안관계에서 대륙이 일찍부터 대만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장학금지급 등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대만의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는 사례가 있어왔고, 대륙유학을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양안관계에서 대만주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통합 내지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사례가 많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중국학자들의 경우 대륙에서 공부하는 대만유학생과 대만에서 공부하는 대륙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전선 관점에서의 접근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²⁹⁾ 어쨌든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은 대만에게는 양날의 검인 셈이다. 양안교육교류는 낮은 수준의 정치 의제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잠재적으로 적지 않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2 경제이익 측면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은 대만사회의 출생을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차원에서 대만의 대학과 대만의 일반주민들에게서 환영을 받고 있다.

대만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1997년 이전시기의 출생아 숫자는 매년 평균 32만~33만 명 수준이었으나 1998년에 27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들이 대학에 입학할 시점인 2016년에는 5만 명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만큼 대학의 재정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³⁰⁾

반면에 빠른 경제성장속도를 보이는 중국은 해외유학생 성장속도도 가장 빠르다. 2014년도에 해외유학을 떠난 중국유학생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 11% 증가한 46만 명에 이른다. 유학자금원 기준에서 보면 직장 혹은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장학금 수혜자들이 3만 4천 여명에 불과하고, 92%에 이르는 42만 여명은 부모 등이 지원하는 개인경비로 유학자금을 조달한다.³¹⁾ 유학대상국가 기준으로는 46만명의 유학생 가운데 60% 이상이 선택한 미국이 가장 많고, 2위부터 10위까지가 영국, 호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웨덴 순서이다. 마잉주 정부는 대만이 갖고 있는 한자와 중화문화라는 토양과 대학의 높은 교육수준이 중국학생들에게 유학을 결정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대학의 재정위기와 파생되는 여타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잉주 정부는 적절한 학

29) 李溪萌, 胡莉莉, 高校台湾学生统战策略研究, 湖北省社会主义学院学报 第3期, 2015年06月 p.38.

30) 吳秀玲, 위의 글, pp. 24-25

31) “2014中国出国留学人数再增 共约46万人”, 2015년 3월 6일, 财新网, <http://china.caixin.com/2015-03-06/100788923.html>(2015년 10월 22일 검색일)

생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대륙학생들의 대만유학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만학자들은 대륙학생의 대만유학을 ‘사막 위의 오아시스(荒漠甘泉)’라고 표현할 정도로 경제적 이익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유치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다수의 대륙학생들로 하여금 대만유학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대만을 잘 알고 우호적인 ‘지대파(知臺派)’ 청년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³²⁾

미국 하버드대학 페어뱅크 연구센터의 Willaim Kirby 소장도 “대륙학생들이 대만에서 공부하는 것은, 대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대륙유학생 유치 정책을 분석했다. 또한 대만 학자들도 저출산 추세에 따른 대학의 학생 부족 문제를 해결 할 뿐만 아니라 대만 경제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³³⁾

1.3 교육 이익 측면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서면서 각국 정부는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고등교육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국 학생을 외국유학 보내거나, 외국의 우수학생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만은 대륙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대륙학생을 통해 대만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동시에 양안학생들의 교류를 통해 중국문화의 전통적 가치도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마잉주 총통 등 정책결정자들은 대만의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이 대만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자극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평가한다. 즉 대륙학생들에게 대만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대만 학생들에게 대륙학생들과의 학습,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다. 대만학생들은 대륙학생들로부터 중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공부하고 싶은 동기도 자극받을 것이다. 반면에 대륙학생들은 대만의 민주적 가치와 개방적 문화를 체험하면서 대학은 양안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평가이다.

대륙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 외에도 이왕이면 동일한 언어, 문화, 풍습으로 인해 비교적 용이하게 유학과정을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으며, 중국 내에서 대만이 차지하고 있는 적지 않은 비중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진로문제와도 관련하여 대만에 적극적으로 유학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³⁴⁾

마잉주의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은 “비교적 추진하기 용이한 사업과 경제문제를 먼저 시작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과 정치문제는 나중에 하자.(先易後難，先經後政)”는 대만 국민당의 양안정책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³⁵⁾ 교육교류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양안 상호간의 교류가 지속된다면 양안사이의 평화구축을 효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의도이다. 타이베

32) 吳秀玲, 위의 글, p. 26.

33) 대륙유학생의 대만 유학경비는 대만 교육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내수 산업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다. 가령 외국 유학생 1명의 대만 유학 1년 학비를 10만, 생활비 20만 위안(대만 위안)으로 가정한다면, 대륙 유학생의 경우도 1년 대만 체제경비가 30만 위안이며, 처음 계획했던 유학생 숫자인 2000명으로 할 지라도 매년 6억 위안의 생산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주장한다. 王力行, 楊瑪利, 林奇伯, 黃浩榮, <馬英九：抬頭樂幹，跟著我不會錯>, 遠見雜誌, 第267期, 2008 年 9 月。(2015년 10 월 22일 검색일)

34) 吳秀玲, 위의 글, pp. 26-28.

35) 吳秀玲, 陸生來臺政策之評估政策白皮書, 公共政策與法律研究中心, 2013.2.28. pp. 23-28.

이시장에 있을 당시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대륙유학생 유치는 장기적으로 중국 신세대의 생각과 미래 지도자로서 정책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도 섞여 있다.

2. 찬반 논란 분석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은 양안관계와 대만 정당세력 간의 상이한 입장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세력(국민당 대 민진당), 교육계(대학본부 대 독립파 지식인), 기업계, 일반민중(통독입장, 중간파) 등 계급적 성격에 따라 그에 준하는 찬반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2.1 찬성 입장

먼저 정치세력에서는 국민당출신의 입법원 부원장인 홍슈쥬(洪秀柱)는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은 대만 대학의 입학정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대만 경제 회복에 긍정적이며, 양안 학교간 경쟁을 자극하여, 양안사이의 상호발전을 유도할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또 하나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의 지지세력은 대만의 국·사립 대학들이었다. 국립대만대 총장 리쓰천(李嗣涔)은 적극적인 찬성론자였는데 국립대학교원협회 이사장에 재임하는 동안 사립대학교원협회이사장 리텐런(李天任), 사립기독교원협진회이사장 천전구이(陳振貴)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대륙유학생 유치’와 ‘대륙학력인정’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였다. 리쓰천 총장은 대만의 대학협의회 내부 조사에서 8할 이상의 총장이 중국유학생의 대만 유학을 지지했다고 공개하면서 대외개방을 해야만 (대만) 학생들이 자유롭게 해외유학을 하려할 것이며, 비로소 국제화 흐름속에서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지의견을 밝히고, 둘째로는 대륙유학생에 대한 문호개방은 대만의 국가사회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³⁶⁾

대만 일반 시민들은 대륙유학생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비율이 비슷하지만 찬성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TVBS가 2010년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1%, 반대 47%이고, 원견잡지조사는 대륙의 학부모까지 포함하여 조사를 하였다.³⁷⁾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대만에서는 국민당 지지세력이 비교적 찬성입장에 서있고, 양안을 비교하면 대륙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을 찬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만의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우선 정치인 출신들은 양안관계의 평화적 관계 설정과 대만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교육계 인사들은 대만 대학의 재정문제 해결과 양안 교육교류를 통한 중화문화의 발전과 대만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2.2 반대 입장

반대론자들은 민진당을 중심으로 한 대만주체성을 강조하고,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정치세

36) “開放陸生 三大校長團體籲盡速修法”, 中廣新聞網, 2009년 5월 13일.

<http://giving.ntu.edu.tw/website/print.asp?postsn=277>(2015년 11월 15일 검색일)

37) 중국시보(中國時報)의 조사에서는 찬성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찬성론자의 입장은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47%가 지지의사를 표시했으며,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대만의 인재 유실이 우려된다,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에 기초한 사상제뇌가 우려된다 등의 이유로 34% 정도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대만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원견잡지(遠見雜誌)는 대만과 대륙의 학부모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만 학부모는 41.8%가 찬성한 반면에 대륙 학부모는 90.7%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력과 학자들이 중심인데, 이들의 반대 입장은 국가안보 위협, 대만인 취업 기회 불리, 흡수효과 우려, 교육자원 배제, 미래 영향 등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판단은 반대론자들이 가장 주요하게 제시하는 반대이유이다. 대륙 중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대만을 중국에 복속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때문에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은 대만청년들의 ‘국가정체성’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다.³⁸⁾

둘째, 대만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시각은 2007년 먼저 중국유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일본에서의 부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즉 일본이 제도시행 3년 만에 7만여명의 대륙유학생을 받아들였으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유학은 가짜이고,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는 현상이 심각하여, 일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심지어 체류기한 지난 대륙학생들이 귀국하지 않으면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낭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⁹⁾ 더군다나 대만의 대학졸업생들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륙 학력을 인정하고, 대륙학생들이 대만에서 유학한다면 대만학생들의 취업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⁴⁰⁾ 취업문제는 노동 등 민생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국민당과 민진당 등 모든 정파가 우려하는 부분이었다. 결국 마잉주정부는 대륙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졸업이후에도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을 시행하였다.

셋째, 반대론자들은 흡수효과(磁吸效應)를 우려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대만과 대륙의 교육수준에 대한 상이한 판단기준과 우수학생의 자유선택으로 인한 대만교육 공동화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말하는 대륙의 우수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의심이 깔려있다. 우선 대만 학자는 홍콩사례를 예시하는데, 홍콩이 대륙유학생을 모집할 때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4년 전액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는 홍콩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차별대우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오히려 대륙학생들은 자비보다는 국비 유학생 분포가 더 많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학자는 대륙의 학위취득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평가하고 대만학생들이 대륙 대학에서 손쉽게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모두가 서진(西進)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우수한 인재를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을 것(高出低不進)이라는 우려가 반대론자들의 생각이다.⁴¹⁾

넷째, 반대론자들은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은 대만교육자원이 대륙학생들에게로 유출되면서 대만학생들에게 가는 혜택이 감소하거나 심지어는 사라질 것을 우려한다. 대만 학자들은 현재도 대만의 공사립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륙학생들을 무상으로 교육시킨다면 대만학생들에게는 상응하는 교육자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될 것이며, 결국 대만 학부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쇄반응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륙유학생들이 대만에 유학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학비

38) 반대론자들은 중국유학생을 대만으로 받아들인다면 대만안보의 위협요소가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먼저, “대륙정부는 대만에 유학하는 대륙유학생의 자격을 ‘공청단’ 출신으로 제한할 것이며, 대만에서는 각종 동아리단체 또는 사회활동에 참가하여 베이징올림픽 선전이나 스촨대지진 구호 지원모금 활동 등과 같은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朱芳瑤, <共青團陸生 瘋台灣政治 愛社團>, 中國時報, 2008년 12월 2일. 다음으로, “대만에 오는 학생들은 모두 1개월의 사상훈련과정을 이수한 다음 보내질 것이며, 교육도 대륙의 통일전선전술의 하나에 불과하며, 점차 금융, 문화, 군사 등의 분야로 넓혀나갈 것이다.” 朱真楷、陳文信, <綠：需陸生才能刺激學習?>, 中國時報, 2010년 4월 21일.

39) 張錦弘, “開放陸生 教部反對”, 聯合報, 2007년 5월 1일.

40) 陳智華, “開放陸生 學者：要有配套”, 聯合報, 2008년 9월 20일.

41) 張婕, <中生來台怎放行 台灣關鍵的抉擇>.

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²⁾ 결국 마정부는 6가지 불가 항목 중에 장학금 지급 불가를 포함시켰다.

다섯째, 앞선 네 가지 반대 근거가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의 실시에 따른 현재적 문제요소를 지적하고 있다면, 이번 문제제기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에 대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대만 정체성 연구 전문가인 스정평(施正鋒)교수는 “대륙유학생이 학업목적으로 들어온 이후에 대만인과 결혼하고, 대만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으며, 심지어는 국가안보기밀이 외부로 누설될 가능성도 있다”며 안보적 문제점을 강조한다.⁴³⁾ 또한 “대륙에서 쉽게 학위를 받은 대만학생이 대만으로 돌아와 교수로 활동할 경우에도 국가정체성과 사상적 가치 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교육할 경우에, 다음 세대들의 대만 주체성이 상실될 우려도 존재한다.”면서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의 위협요소를 부각시켰다.⁴⁴⁾

반대론자의 입장은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이 기본적으로 대만의 정체성을 약화시켜, 중국과의 통합 주장을 확산시키는 한편 대만독립 기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하지만 찬반 입장이 서로 논쟁을 거치면서 몇 가지 제한 조건을 붙임으로써 대만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시키고 기대효과는 늘리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2012년 총통 선거과정에서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에 찬성하는 교육계와 일반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민진당의 입장이 유연하게 바뀐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2011년 1월에 대륙 유학생 유치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만입법원에 회부된 [대학법], [전문학교법], [양안인민관계조례] (대륙유학생 관련 3개법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총통 입후보자인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주석도 2011년 8월 19일 발표한 [10년 정강] 교육공약에서 “대륙유학생이 대만에 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만유학생 유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녀는 “다만 교육자원의 분배와 대만학생들의 취업기회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만학생, 외국인 유학생, 대륙학생의 비율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⁵⁾

IV. 중국유학생 유치정책 실시 현황과 ‘3제한 6불가(三限六不)’ 조치

1. 실시 현황

중국유학생의 대만유치 정책의 실시가 결정된 이후 대만교육부는 빠른 속도로 유학생 유치를 준비하였다.

2011년도부터 1차로 대륙의 41개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면서 대륙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래 표1)의 대륙학생들의 대만 유학 추세에서 나타나듯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대륙유학생 유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현재 대만에는 6천 여 명의 대

42) 민진당 출신 입법위원 관비링(管碧玲)은 ‘학비 차등 부담’ 제도를 채택하는 서구 일부 국가처럼 대만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대만학생과 대륙학생사이의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林曉雲, <立委提案 確保防弊陸生才能來>.

43) 林曉雲, 胡清暉, <陸生禁打工? 學者批政府無力控管>, 自由時報, 2008 年11 月11 日.

44) 대만사(臺灣社) 등 9개 본토화운동 사회단체는 “독을 지닌 학생이 쉽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不容毒學生輕易進口)”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의 실시에 앞서 대륙유학생의 대만의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참가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陳詩婷、曾韋祺、陳曉宜、李欣芳, <開放陸生 國內生: 抗爭到底>, 自由時報, 2008년 9월 25일, <http://www.libertytimes.com.tw/2008/new/sep/25/today-p1.htm> (2015년11월20일 검색일)

45) 李曉萍, 開放陸生來台就學政策與機制 2008-2012, 淡江大學 碩士, 2011. p. 43.

육학생들이 대만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대륙 학생의 대만 유학은 양안관계 발전에 따라 새로운 진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중국 학생들의 대만유학열풍과 함께 대만 교육부의 학력인정 대륙학교가 크게 확대되면서 양안 대학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2) 대륙학생 대만 유학 추세

| 연도 | 모집 정원 | 실제 등록 | 박사 | 석사 | 2년제 전문 | 학사 |
|------|-------|-------|-----|-----|--------|------|
| 2011 | 2141 | 928 | 23 | 181 | - | 724 |
| 2012 | 2141 | 951 | 25 | 265 | - | 661 |
| 2013 | 3805 | 1822 | 71 | 467 | 75 | 1209 |
| 2014 | 4700 | 2553 | 141 | 585 | 67 | 1209 |

출처: 行政院大陸委員會全球網, www.mac.gov.tw/, 簡立欣, “臺鬆綁陸生政策 為了本身利益”, 中時電子報, 2015.06.22.

현재 대만에는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광둥성, 북경시, 상해시, 호북성, 요녕성 등 8개 지역에서 온 6천여 명의 대륙학생들이 대만대, 교통대, 청화대, 중산대, 정치대, 성공대 등의 국립대학과 담강대, 중국문화대 등의 사립대학을 포함하여 100여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⁴⁶⁾ 이들의 전공영역은 대만정부가 국가안보, 첨단기술, 국내산업 등을 고려한 국방안보, 중서양의 학 등을 포함한 일부 이공계 전공을 제외한 영역에 한정하여, 전자공학, 재무금융, 법률, 기업 관리, 중문, 경제, 언론홍보, 사회학, 심리학 등 비교적 다양한 전공과정을 선택하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대만은 2011년 처음 실시하던 해에는 중국 대학학력을 인정하는 범위를 41개 대학으로만 국한하였다. 주로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인 푸젠, 저장, 장수, 광둥 4개 성과 베이징, 상하이의 지역 출신에 한해서 입학을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 후 2013년부터 후베이성과 랴오닝성 두 지역을 추가하였는데, 예상보다 입학학생 수가 많지 않음에 따라, 대만 대학행정당국의 불만과 학생수를 늘리기를 원하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함이다. 한편 마잉주 정부는 입학학생수의 제한비율도 단계적으로 증가시켰는데 2000명에서 대만 대학입학능력측정시험의 1% 정도인 2,800여명으로 하다가, 다시금 2% 수준인 5,600여명으로 까지 입학학생수를 증가시켰다.

2. 3제한 6불가(三限六不) 제한조치와 개선

대만 정부는 대만 내부의 반대 입장과 타협하여, 2011년부터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을 시행하면서 소위 ‘3 제한 6불가(三限六不)’ 로 불리는 총 9가지에 걸친 제한조치를 통하여 대만의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양안교육교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3제한(制限)은 거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자는 의도에서 정해졌는데, 중국의 학력인정 대학 숫자, 입학정원 총수, 전공할 수 있는 영역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첫째, 대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중국 대학을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 대학 학력 인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한꺼번에 너무 많은 대학을 인정하면 대만교육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첫해에는 입학가능한 학생들의 출신 중국 대학 수를

46) 1기생은 담강대학에 가장 많은 입학생을 받아들였고, 현재는 국립대만대학이 대륙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다.

대만교육부가 인정하는 41개의 중국 대학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대륙 대학의 학력수준이 대만의 수준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둘째, 매년 대만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을 1,000명으로 제한하였다. 다수의 대륙학생이 대만으로 들어와 장기간 생활할 경우 있을지 모르는 혼란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대만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사회적 통합이 흔들릴 가능성 등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륙학생들이 입학가능한 전공영역을 제한하였는데, 국가안보와 정보기밀 전공, 셋째, 전공분야에 대한 제한으로서 중서양의학 전공, 첨단 과학기술 전공, 국가안보관련 분야 전공은 대륙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안보, 경제사회, 학술교육 등의 문제에서 대만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결정되었다.⁴⁷⁾

대만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대만학생들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불만을 불식하기 위하여, 대륙학생들의 대만유학기간 동안 대만에서의 생활과 관련하여 하지말아야 할 여섯 가지 불가(不可) 조치를 발표했다. 첫째, 대륙유학생들이 수업과정이나 시험에 참여할 경우에,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대만학생들과 동등한 기준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대만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막겠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둘째, 대륙유학생의 입학정원은 따로 할당하여 대만학생들의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는다. 이 역시 대륙학생들로 인하여 대만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셋째, 대륙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대만 정부 재원 혹은 대학의 장학금을 대륙학생에게 지급할 경우에 대만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넷째, 대륙학생들은 학습목적으로 대만에 유학을 왔으니 어떠한 아르바이트도 금지되었다. 아르바이트도 대만학생들의 일자리 기회를 빼앗을 수 있으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대륙유학생은 대만에 시행되는 전문직업 및 기술고시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대만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은 중화민국 국민 신분을 보유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있으며, 대륙학생들에게는 응시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여섯째, 대륙유학생은 졸업 이후 대만에서 취업하는 것을 불허한다는 내용이다. 대만학생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만 노동시장의 안정과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륙유학생들은 졸업 이후 대만에 남을 수 없고 대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9가지의 제한조치는 대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과 이익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자구책으로 공포되었지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인해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제기가 양안 정부와 교육계 그리고 대륙학생들로부터 끊기지 않았고, 실제 대륙학생들의 대만유학 증가추세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판명됨에 따라, 3제한 6불가 원칙은 현재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첫째, 3대 제한 조치 중의 하나였던 대륙의 입학 가능한 우수등급의 대학 숫자를 2011-2012년도의 41개교에서, 2013년에는 111개교로 늘리고, 2014년에는 191개교로 대폭 확대했다.⁴⁹⁾ 그만큼 대륙대학의 학력수준을 인정한다는 의미와 함께 더 많은 대륙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

둘째, 입학 학생 정원을 제한하는 조치도 정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맞추어, 실시 첫째

47) “江陳會前夕釋善意 教部研擬多項開放措施”, 中央社, 2008년 11월 2일, http://city.udn.com/51640/3085001?tpno=0&cate_no=75457. (2015년11월20일 검색일)

48) 陸生三法Q&A, 財團法人國家政策研究基金會, <http://www.npf.org.tw/13/8392>(2015년 11월 16일 검색일)

49) 구체적으로 985공정 대학 이외에 211공정 대학 출신학생도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고등직업교육 부문에서 대륙의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즉 2011년도에 2000명으로 제한하였던 입학정원을 대만입학학생 정원의 1% 이내 기준에 맞춰 2,850명 선으로 늘렸다가, 다시 2% 이내인 5700명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6가지 불가 원칙 가운데 하나로 대만 교육계의 논란거리였던 대륙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금지 항목을 조금 유연하게 하여, 대학 내에서 교수의 연구조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는 교과과정, 논문작성의 일부분이거나 졸업조건 중의 하나로 실습인턴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학교가 아닌 외부의 아르바이트와 취업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⁵⁰⁾ 장학금 수혜도 대만정부가 주는 국가장학금은 받을 수 없지만, 대학이나 사회단체가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⁵¹⁾

그러나 여전히 학교 바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여전히 문제제기하고 있고, 졸업 후 대만에서 취업을 금지하는 제약조건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⁵²⁾

한편 최근에는 대륙학생의 대만 '전국민건강보험' 가입 논쟁으로 인하여, 대륙유학생에 대한 대만인의 복잡한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⁵³⁾ 대만에서는 대만학생이든지 외국학생이든지 상관없이, 혹은 홍콩, 마카오 혹은 동남아의 화교학생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대만의 '전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대만인과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대륙학생들은 이른바 '특수신분'으로 간주되어 가입이 불허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평등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다.

3제한 6불가 조치는 양안관계에서 지정학적 차이와 국력의 격차로 인한 양안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대만의 적극적인 대응방식의 하나이다. 중국은 대륙유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가 국제관계의 호혜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정치적 문제로 상승시키지는 않는다. 양안이 오랜 교류를 하는 동안 서로를 잘 이해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V. 평가 및 시사점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은 대만 마잉주 정부가 양안교육교류를 통해서 안보이익, 경제이익, 개인이익 세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1. 안보이익 측면에서의 평가

대륙유학생의 유치정책은 대륙학생들에게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대만의 핵심가치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⁵⁴⁾ 대만의 대학에서는 교과과정을 통해 대만의

50) 張錦弘, 三限六不陸生政策再鬆綁, 苦勞網, 2014-02-13. <http://www.cooloud.org.tw/node/77475> (2015년11월20일 검색일)

51) 최근 공립장학금은 신청하지 못하나, 학교 자체 혹은 민간 제공의 장학금은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출처:

52) 簡立欣, 臺鬆綁陸生政策 為了本身利益, 中時電子報, 2015.06.22. (2015년11월20일 검색일)

53) 본래 대만정부가 2012년 10월 11일 '양안인민관계조리(兩岸人民關係條例)' 수정안을 행정원에서 통과시켜, 대륙학생의 신분을 '정류(停留)'에서 '거류(居留)'로 바꾸고, 매월 749위안을 납부하면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야당인 민진당과 대만단결연맹은 입법원에서 부결시켰다. 때문에 대륙유학생은 사전에 대륙의 상업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대륙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대만의 의료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출처:

54) 義守大學公共政策與管理學系 王嘉州 부교수는 "政治社會化對來臺陸生政府認同影響" 연구를 통해, 대만 생활 16주차 학생들과 1주차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16주차의 학생들이 중국대륙정부에 대한 인정정도가 0.89 낮아졌다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그 이유는 대만에서 자유민주

정치사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아래 담강대학 석사과정 교과과정은 대륙연구소와 교육정책영도연구소의 세부 교과목이 제시되어있다. 대륙유학생들은 대만 교수와 대만학생들과 함께 동일한 교과목으로 수강하면서 대만의 시각으로 대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석사학위과정 실시규칙에 따르면 졸업이수학점은 최소 12학점이고, 이 중 6학점은 전공 이외 과목의 수강도 가능하다.

표3) 淡江大學 兩岸文教發展研究 碩士學分學程 - 教育政策與領導研究所

| 中國大陸研究所 (至少6學分) | | 教育政策與領導研究所 (至少6學分) | |
|-------------------|----|--------------------|----|
| 교과목 | 학점 | 교과목 | 학점 |
| 양안정치경제연구 | 2 | 교육정책연구 | 2 |
| 중국대륙경제국제화전략 | 2 | 중국대륙교육정책연구 | 2 |
| 중국대륙연구:이론과 실무 | 3 | 각국 교육정책 비교연구 | 2 |
| 중공정치발전 | 3 | 교육정책연구: 고등교육 | 2 |
| 중공개혁개방정책연구 | 3 | 교육영도 및 행정 | 2 |
| 중국도시와 지역발전 | 3 | 교육행정결정연구 | 2 |
| 아시아기업국제경영모델 | 2 | 교육평가이론 및 실무 | 3 |
| 중국경제개혁 및 양안경제무역관계 | 2 | 학교 기능 및 개선 연구 | 2 |

한편 대륙학생 스스로 대만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대만사회의 다원성이라고 말한다. 대만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거리행진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외치는 상황도 아무런 제한없이 볼 수 있으며, 정부를 비판하거나 대만독립을 외치는 정치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며, 지방선거에서부터 총통선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치러지는 선거를 대륙학생들은 직접 경험할 수 있다.⁵⁵⁾

또한 대만정부나 의회의 정치활동을 대륙학생들이 참관을 통하여 자유롭게 지켜볼 수 있으며, 대만의 정당도 강연이나 간담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대륙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주한다. 민진당도 대륙학생들을 당사로 초청해 좌담회나 강연행사를 개최하여 민진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설명하기도 한다.⁵⁶⁾

이러한 상황은 반대입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했던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이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에 의해 악용되어 대만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경제이익 측면에서의 평가

대륙유학생의 대만 유학경비는 대만 교육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내수

를 체감한 것, 대만교수들과의 자유로운 정치토론을 벌이는 점, 인터넷의 자유 사용을 통한 대륙중국의 부정적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에 있었다고 발표했다. 王嘉州, “政治社會化對來台陸生政府認同之影響”, 2010년11월25일. p. 1. http://www.isu.edu.tw/upload/82207/6/files/dept_6_lv_3_24608.pdf.

55) 대만의 대륙유학생-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인정, 鳳凰網, 2013.02.27.,

<http://news.ifeng.com/opinion/special/lushengtaiwan/>(검색일 2015.08.04.)

56) 민진당은 2013년도에 ‘자유대만 시리즈’ 행사를 개최하여 대륙유학생과의 교류 행사를 가졌다. 1박 2일에 걸친 교류행사에는 중국 14개 지역출신 34명이 참여했는데, 이중 26명은 석사생이고, 8명은 단기 교환생 신분으로 참가했다. 행사 내용은 학생과 민진당 당직자와의 좌담회와 초청학자의 강연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체적 강의 내용은 대만사회, 역사, 양안관계, 민주자유, 인권, 문화 등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이나 중국에서의 정의실현과 같은 민감한 의제도 포함하고 있다. 林楠森, 台灣來鴻: 民進黨與陸生的交流, BBC中文網, 2013년 12월 5일.

산업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⁵⁷⁾ 때문에 더 많은 대륙유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선 학력을 인정하는 중국 대학의 숫자를 계속 늘렸고, 매년 받아들이는 대륙유학생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아래 표4)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대만을 방문한 중국의 문화교육 관련 전문가 추세를 보여준다. 천수이벤 정부가 집권한 2007년까지 양안 교육교류는 중단됨이 없이 지속되었으나, 증가폭은 크지 않다가, 마잉주 정부가 집권한 200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륙인사들의 대만방문은 대만의 교육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 2004-2012년 중국문화교육전문가 대만방문자 수

| 연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인원 | 12,987 | 12,529 | 14,413 | 21,816 | 20,058 | 30,945 | 45,646 | 60,940 | 62,901 |
| 누계 | 12,987 | 25,516 | 39,929 | 61,745 | 81,803 | 112,748 | 158,394 | 219,334 | 282,235 |

출처: 劉志民, 兩岸教育交流展望, 2013.11.13

표5)는 양안 대학 사이에서 학술교육교류와 협력을 위한 의향서 체결 건수이다. MOU 체결 역시 2008년 이후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대만 대학이 중국 대학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보와 정체성 측면에서 본다면 대륙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는 대만에서 양안교육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표5) 양안 대학의 서면협력의향서(MOU) 체결건수

| 연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건수 | 185 | 65 | 108 | 182 | 293 | 679 | 1,089 | 1,460 | 1,168 |
| 누계 | 185 | 250 | 358 | 540 | 833 | 1,512 | 2,601 | 4,061 | 5,229 |

출처: 劉志民, 兩岸教育交流展望, 2013.11.13

3. 개인이익 측면에서의 평가

대륙유학생 유치정책의 당사자인 대륙학생들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유학생활동을 실질적인 부분에서 제약하고 있는 ‘3한 6불’ 조치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대륙학생들은 대만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이 많고 친절하다는 평가를 한다. 대만에서는 사람사이의 교류가 쉽게 이루어지고 서로 우호적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륙에서 사람들의 성질이 비교적 거세고, 미워하는 감정도 강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대만에서 느끼는 편한 부분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⁵⁸⁾

57) 중국의 푸젠성의 대도시 샤먼과 가까운 진먼다오(金門島)는 대륙과 근접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분단 초기 중국의 집중포격을 당하는 등 높은 무력충돌 위험성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양안사이 교류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대륙에 근접한 위치로 경제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청장년 인력이 늘어나는 등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진먼현 정부는 “군인은 보내고, 학생은 받는다.”는 ‘진먼대학섬(金門大學島)’프로젝트를 통해 대륙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58) 대륙유학생들은 대만 대학의 교수들에게 친절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사소하게는 식권카드, 전화카드 구입에서부터 교육부와의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타이완의 대학행정부서는 대륙과는 달리 관료주의 색채官威가 덜하고 보다 친밀하게 대한다. 입학초기

부정적 평가는 대만정부가 야당과 타협하여 설정한 ‘3한 6불’ 제한조치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대만사람들과 교류할 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접촉할 때에는 일정정도 존중받고 있는 기분이 들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륙과 관련된 화제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⁵⁹⁾

2. 남북한 관계 진전을 위한 시사점

양안교류협력은 본질적으로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부정하는 중국과 이에 대응하는 대만 내부의 정치세력간의 입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양안관계의 긴장과 화해의 정도를 재는 척도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대만을 중국으로 끌어당기는 기조이고, 대만은 ‘현상유지’ 혹은 ‘대만독립’을 이야기하면서 대만의 독자적 존립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지난 11월 7일 분단 66년만에 양안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적 대립을 가급적 피하고 경제교류를 통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과 함께 양안 교육교류를 통해 대륙과 대만학생들이 상대방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습마회(習馬會)’에서 마잉주 총통은 양안 문교교류가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지속적인 확대발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가능한 분야에서 적절한 교류를 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양안 교육교류는 대만정치상황의 변화가능성이 예상되는 분위기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양안교육교류를 살펴보면 중국과 대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황에 부합하는 교류 형식과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배려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만은 인적교류 초기에는 자국민의 대륙방문을 허용하면서도 중국인의 대만방문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은 교류의 대등성을 요구하지 않았다.⁶⁰⁾

양안교육교류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시사점은 바로 상호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단 없는 교류방식을 채택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학술교류와 같은 비정치적 교류가 제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남한의 대북투자자와 협력, 정경분리원칙,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 민간주도의 남북교류협력, 교류협력에 있어서의 남북간 상호신뢰 구축 등이 필요하다.⁶¹⁾

1991년 남북탁구 단일팀을 구성하여 제41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것을 기화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고,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추진 이후인 2005년에는 남북협력사업승인건수가 47건으로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교류분야도 학술과 문화예술, 체육분야를 포함하여 종교, 언론, 출판, 과학,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교류협력을 한 사례도 있었다.⁶²⁾

통일문제연구자 김영수 교수도 2001년 “대학교류는 결국 사회문화 통합이란 과제로 귀결된

에 학과장과 함께 총장의 식사초대를 받기도 했다. “대만의 대륙유학생-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인정”, 鳳凰網, 2013. 2. 27(2015년 9월 21일 검색일)

59) “우리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다.(張逸帆,你們的健保很好,但我從未向你們乞討)”, ETtoday論壇新聞 <http://www.ettoday.net/news/20151129/605100.htm#ixzz3uDfw1LGu>

60) 신종호, 중국-대만 간 교류협력의 특징 및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 정책연구 2010-54, 2010.12, p. 72쪽

61) 최명길, 남북교류협력_활성화를_위한_양안교류법제의_시사점, 법학논총, 국민대, 2006

62) 신종호, 중국-대만 간 교류협력의 특징 및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 정책연구 2010-54, 2010.12, p. 41쪽

다. 이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라고 교육교류의 중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그동안의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주로 영토와 제도의 통일을 추구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위해서는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을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⁶³⁾

몇 개월 전 국내매체에서는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남북한 간의 언어표현의 차이 뿐만 아니라 웃음코드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랜 분단과정을 거치면서 이질화되어가는 정체성의 왜곡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질화되어가는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협상테이블에 만난다면 그래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과감하게 학생교류를 통한 교육교류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참고문헌

- 김영수, 통일 교육과 남북 대학 교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12권 0호. 2001 pp.37-43
- 신종호, 중국-대만 간 교류협력의 특징 및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 정책연구 2010-54, 2010.12, p, 72쪽
- 최명길, 남북교류협력_활성화를_위한_양안교류법제의_시사점, 법학논총, 국민대, 2006
- Allport, G., & Allport, G. W.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Perseus Books, 1954.
- Nye, Joseph S.,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York: Public Affairs, 2004
- 何秀珍, 兩岸文教交流策略分析, 國際暨兩岸交流處, p. 170.
- 李曉萍, ‘開放陸生來台就學政策與機制’, 2008-2012, 淡江大學 碩士, 2011. p. 35.
- 叶思思, 台灣地區招收大陸學生赴台就學政策研究, 湘潭大學, 公共管理 碩士, 2013.
- 劉丹, 陸生政策合法化及其影響因素研究, 浙江師範大學, 高等教育學 碩士, 2012.
- 吳榮鎮, 兩岸教育交流政策文化價值觀之評析, p. 181,
ct100.chihlee.edu.tw/ezfiles/11/1011/img/.../a011.doc(2015년 11월 8일 검색일)
- 周祝瑛, 兩岸大學生交流之回顧 1992-2012, 2013, p. 126.
- 何秀珍, 兩岸文教交流策略分析 - 國際暨兩岸交流處, p. 171
- 吳秀玲, 陸生來臺政策之評估政策白皮書, 公共政策與法律研究中心, 2013.2.28. pp. 23-28.
- 鄒夢瑩, “台生在大陸求學現狀評析”, 中央網路報, 2015-10-15, <http://www.cdnews.com.tw>
(2015년 12월3일 검색일)
- 條漫長回家的路—老兵返鄉探親運動,
http://ndweb.iis.sinica.edu.tw/TWM/Public/pdf/old_soldier.pdf
- 華夏經緯網, 陳水扁聲稱任內不開放大陸勞工、不承認大陸學歷, 2003年12月17日.
<http://big5.huaxia.com/20031229/00161405.html> (2015년 11월 15일 검색일)
- 胡锦涛就新形势下发展两岸关系提出四点意见, 2005년 3월 4일,
<http://news.sina.com.cn/c/2005-03-04/17225269441s.shtml>(2015년 10월 15일 검색일)
- 陳曉宜, “馬英九: 承認中國學歷才是愛台灣”
<http://old.ltn.com.tw/2004/new/aug/21/today-p1.htm>(2015년 10월 16일 검색일)
- 僑委會, 萬馬奔騰計畫首批國際事務人才結訓, 中央社訊息平台,
<http://www.cna.com.tw/postwrite/Detail/37395.aspx#.VmaJktLhBpg>(2015년 10월 16일 검색일)

63) 김영수, 통일 교육과 남북 대학 교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12권 0호. 2001 pp.37-43

색일)

<馬英九教育政策-對新世代的教育承諾>, 馬英九, 蕭萬長的全方位政策白皮書,
<http://2008.ma19.net/policy4you/education>. (2015년 10월 16일 검색일)
“2014中国出国留学人数再增 共约46万人”, 2015년 3월 6일, 財新網,
<http://china.caixin.com/2015-03-06/100788923.html>(2015년 10월 22일 검색일)
林聰明, “開放陸生來臺就學週年評議”, 2012년 9월 8일《新華澳報》,
<http://www.waou.com.mo/detail.asp?id=63652>.(2015년 11월 15일 검색일)
<開放陸生 三大校長團體籲盡速修法>, 中廣新聞網, 2009 年5 月13 日,
朱真楷、陳文信, <綠: 需陸生才能刺激學習?>, 中國時報, 2010년 4월 21일.
陳智華, “開放陸生 學者: 要有配套”, 聯合報, 2008년 9월 20일.
陳智華, <最快明年 陸生來臺讀大學>, 聯合報, 2008년 9월 21일.張婕, “中生來台怎放行 台灣關鍵的抉擇”.
林曉雲, “立委提案 確保防弊陸生才能來”.
陳詩婷、曾韋禎、陳曉宜、李欣芳, <開放陸生 國內生: 抗爭到底>, 自由時報, 2008년 9월 25일, <http://www.libertytimes.com.tw/2008/new/sep/25/today-p1.htm> (2015년11월20일 검색일)
“江陳會前夕釋善意 教部研擬多項開放措施”, 中央社, 2008년 11월 2일,
http://city.udn.com/51640/3085001?tpno=0&cate_no=75457. (2015년11월20일 검색일)
張錦弘, “開放陸生 教部反對”, 聯合報, 2007년 5월 1일
張錦弘. 三限六不陸生政策再鬆綁. 苦勞網, 2014-02-13.
<http://www.cooloud.org.tw/node/77475> (2015년11월20일 검색일)
簡立欣, 臺鬆綁陸生政策 為了本身利益, 中時電子報, 2015.06.22. (2015년11월20일 검색일)
王嘉州, “政治社會化對來台陸生政府認同之影響”, 2010년11월25일. p. 1.
http://www.isu.edu.tw/upload/82207/6/files/dept_6_lv_3_24608.pdf. (2015년11월20일 검색일)
林楠森, 台灣來鴻: 民進黨與陸生的交流, BBC中文網, 2013년 12월 5일. (2015년 12월 2일 검색일) <http://news.donga.com/3/all/20031226/8014878/1>(2015년 10월 15일 검색일)
教育部, [開放大陸學歷採認與陸生來臺就學說明], 2009년 6월 10일.
“開放陸生 三大校長團體籲盡速修法”, 中廣新聞網, 2009년 5월 13일,
<http://giving.ntu.edu.tw/website/print.asp?postsn=277>(2015년 11월 15일 검색일)
陸生三法Q&A, 財團法人國家政策研究基金會, <http://www.npf.org.tw/13/8392>(2015년 11월 16일 검색일)
“후진타오 ‘양안 관계 정경분리’ 천명”, 동아일보, 2003년 12월 26일.